

“더위에 지친 어르신 주말에도 쉬어 가세요” 폭염 대응 어르신 쉼터 확대, 경로당 운영시간 연장

- 전국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어르신 안전 확보 -
- 전국 6,363개소 거점경로당 9월까지 운영시간 연장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5일(수)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폭염 피해가 커짐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16개 시도와 협력하여 읍면동별 거점경로당 6,363개소를 지정하였다. 지정된 거점경로당은 오는 9월 30일까지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전국에 경로당은 69,687개소가 운영 중으로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해 왔으나, 폭염대책 기간(~ 9월 30일) 동안 거점경로당 6,363개소는 매일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지역의 이용 수요와 운영 여건, 폭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노인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65세 이상 어르신은 경로당에서 무더위를 피할 수 있다.

어르신들이 거점경로당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시간과 이용 방법을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누리집, 이용 시간 안내문 부착, 문자 발송, 대한노인회와의 홍보 협조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냉방기 가동 및 운영 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연장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재난에 가까운 폭염 상황에서 경로당 연장 운영 조치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시도별 연장운영 경로당 현황

담당 부서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책임자	과 장	신명희	044-202-3470
		담당자	사무관	선수정	044-202-3484



시도별 연장운영 경로당 현황

('26.8.5 취합기준, 개소)

시도명	연장 운영 경로당 (거점경로당)	비고
계	6,363	
서울	206	
부산	66	
대구	95	
인천	23	
광주	60	
대전	15	
울산	60	
세종	7	
경기	223	
강원	44	
충북	172	
충남	219	
전북	1,394	
전남	1,406	
경북	321	
경남	2,023	
제주	29	

※ 지역 내 수요, 경로당 실제 운영 여건 등 고려
 지역 내 타 시설(행정복지센터, 공공도서관 등)을 무더위쉼터로 활용